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3.12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2.60원 (-3.30원)

KOSPI

5,5609.95 (+77.36, +1.40%)

KOSDAQ

1,136.83 (-0.85, -0.075%)

국고채 10년 금리

3.608 (-0.021%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예측 말고 준비 [김상만]

기업분석

쏠리드	최소한 시총 1조원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김홍식]
오이솔루션	내일 매수하면 늦습니다 [김홍식]
농심	4Q25 Re: 아쉬운 미국 [심은주]

산업분석

통신장비	미국 AT&T 망 투자 소식은 두번째 상승 트리거 [김홍식]

글로벌리서치

오라클	순항 중인 OCI & 상향된 가이던스, 여전히 남은 체크포인트 [김재임]

단기투자유망종목

S-Oil, 키움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알지노믹스, 씨엠티엑스, 덕산하이메탈

하나증권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3월 11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예측 말고 준비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전쟁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확대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성이 크게 떨어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사태가 조기에 수습 내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4년 전 러-우 사태에 못지않은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유럽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이번에는 그 부정적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조달 비용상의 문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한 상황이다. 일부 석유화학기업의 '불가항력' 선언은 그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징표이다.

지금으로서는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조기에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섣부른 예단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예측보다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등이 단행되고 있으며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조치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응책과 관련하여 채권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자. 다시 4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국제 에너지 가격 앙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에너지 공기업의 원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러-우사태 당시에는 원가부담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없었기에 에너지 공기업들은 부족한 자금을 차입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채권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채권시장 내 공급 충격 및 가격부담을 준 바 있다. 이번에도 상당 기간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에너지 공기업들의 조달 이슈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국전력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대응한다면 채권시장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자체적으로도 사채발행한도 등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게다가 '22년처럼 적자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재현되면 한도 이슈는 더더욱 꼬이게 된다). 가스공사의 경우처럼 非사채(실제로 단기 시장성 차입) 위주로 조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단기조달도 증가하면 단기자금시장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은행권 대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절대 물량이 커지면 은행권 대출한도가 걸림돌이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관련 파장이 4년 전과 유사하게 전개될 경우 채권시장 내 물량 부담을 감내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에도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채권 발행으로 현금 부족을 메꾸게 된다면 일종의 유사 추경이 실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물량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금융시장 안정조치에(가능하다면) 추가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자면 바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이고 그중 하나가 자원안보(핵심광물, 에너지)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기금은 '공급망 핵심 분야 등에 대해 최대 국고채 수준으로 금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왕에 기금이 설정되어 있고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방식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실화된다면 기왕에 정책성 펀드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중복지원을 줄이고 재원 활용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도 기대할만하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시장의 수급 기대 심리를 관리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전략에 대해 생각해보자. 전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쟁 이전과 그 이후의 경제여건 및 채권시장 환경은 달려져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균유가는 이전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물가 부담도 커질 것이다. 신용스프레드 측면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은 그 이전에 비해 더 높게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직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2026년 3월 12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쏠리드 (050890)

최소한 시총 1조원은 되어야 정상입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상향)
현재주가(3.11)	11,7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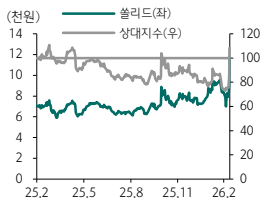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36.83
52주 최고/최저(원)	11,710/5,920
시가총액(십억원)	711.5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60,75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29.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5
외국인지분율(%)	14.40
주요주주 지분율(%)	
정준 외 2 인	10.5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94.8	308.8
영업이익(십억원)	33.4	35.9
순이익(십억원)	36.8	31.8
EPS(원)	605	523
BPS(원)	5,837	6,32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321.4	331.1	294.8	308.8
영업이익	36.3	35.1	33.4	35.9
세전이익	49.1	54.3	38.8	36.5
순이익	40.9	46.1	36.9	31.8
EPS	668	754	605	524
증감율	37.17	12.87	(19.76)	(13.39)
PER	9.07	8.81	12.18	17.19
PBR	1.35	1.25	1.26	1.43
EV/EBITDA	8.44	8.65	10.49	14.72
ROE	16.30	15.52	10.98	8.74
BPS	4,492	5,326	5,844	6,319
DPS	50	50	50	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2개월 목표가 20,000원으로 상향, 사 놓고 기다리면 결국 크게 오를 것

쏠리드 12개월 목표주가를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5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에 따른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최근 통신장비 업종 Multiple 상승을 감안한 결과이다. 목표가 2만원은 Target PBR 3배 수준인데 피어 그룹 및 역사적 Multiple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적용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쏠리드 매수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실적 우려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2) 2026년~2027년 미국/유럽/국내 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이익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3) 5G/6G 시대에서도 인빌딩 장비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이고, 4) 높은 기저 때문에 드라마틱한 실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대신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약간의 실적 변화 감지에도 주가가 크게 반등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장비 업종 내 순환매 차원에서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바이앤드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가격 매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매수 시점을 앞당길 것을 권한다.

과도한 실적 우려가 주가 상승 장애 요인, 그런데 이젠 막연한 우려 안 먹힐 것

최근 5년간 쏠리드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지속하였다. 여타 통신장비 업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안정적인 매출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수 글로벌 SI로의 매출은 물론 해외 총판, 대형 유통업체, 통신사 직납 등 다양한 판매망을 보유한 탓이 컸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다. 유럽 관공서 매출과 더불어 미국 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2021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22년 영업이익 276억원 달성, 2023~2025년 3년 연속 3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하락 기조가 이어졌다. 2020년도에 쏠리드 주가가 2021~2022년 실적을 선반영한 측면도 있었지만 과도한 실적 우려가 지속된 탓이 컸다. 2021~2024년 국내 대다수 통신장비 업종 실적이 좋지 않음에 따라 덩달아 쏠리드 실적 부진 우려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찌 보면 2020년 통신장비 업종 주가 동반 상승이 2021년 이후 쏠리드 주가에 독약이 된 셈이다.

무선장비주로의 순환매 본격화, 특히 미국 AT&T CAPEX 증액 선언 긍정적

하지만 역으로 이젠 쏠리드 주가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2019~2020년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대다수 통신장비 업체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반면 쏠리드 주가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 현재 Multiple과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다. 2026년엔 쏠리드 주가가 후행적으로 키 맞추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미 실적은 좋은데 주가 상승 폭은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AT&T가 CAPEX 증액에 나설 것이란 발표가 있었다. 국내 무선 통신장비주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되며 쏠리드는 2019~2020년처럼 이익 증가에 앞서 동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03월 12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오이솔루션 (138080)

내일 매수하면 늦습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상향)
현재주가(3.11)	30,6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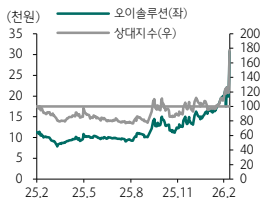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136.83
52주 최고/최저(원)	30,650/7,890
시가총액(십억원)	368.1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2,15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02.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2
외국인지분율(%)	7.62
주요주주 지분율(%)	
박찬 외 3 인	23.2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57.3	101.9
영업이익(십억원)	(13.9)	3.5
순이익(십억원)	(15.1)	(0.1)
EPS(원)	(1,399)	(8)
BPS(원)	5,350	4,47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46.0	32.0	57.3	120.9
영업이익	(31.1)	(30.4)	(15.8)	7.7
세전이익	(29.5)	(32.0)	(27.2)	6.5
순이익	(33.8)	(33.1)	(27.3)	5.0
EPS	(3,183)	(3,118)	(2,526)	412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4.04)	(3.35)	(5.18)	61.65
PBR	1.19	1.34	2.76	5.12
EV/EBITDA	(5.72)	(5.55)	(17.69)	29.24
ROE	(26.11)	(35.71)	(45.05)	10.08
BPS	10,839	7,758	4,736	4,960
DPS	10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오이솔루션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상향

오이솔루션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미국에서 6월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800MHz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경매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고, 2) AT&T에서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 규모 CAPEX 집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통신 장비 투자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중이며, 3) 오이솔루션은 과거에도 글로벌 SI를 통해 북미에 무선향 트랜시버를 대규모로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고, 4) 최근 서버향 트랜시버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는데, 통신망 생태계를 고려하면 이제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무선 기지국향 트랜시버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에 맞춰 글로벌 통신사 CAPEX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는 등 2019년 당시보다 업사이드가 대폭 커졌다. 이를 감안하여 타겟 PBR을 10배로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50,000원으로 상향한다.

AT&T 2,500억 달러 역대 최대 CAPEX 계획 발표, 망 투자 논리 구체화되는 중

AT&T가 향후 5년간 2,500억달러 CAPEX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3/10일 발표했다. AT&T가 24~25년에 CAPEX로 200억달러 집행한 것을 감안하면 2배 증가한 셈이고, 과거 LTE나 5G 당시 CAPEX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아무래도 피지컬 AI가 활성화되려면 그만큼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니 당연한 수순이겠다. 그런데 오이솔루션은 과거에도 삼성전자나 노키아 같은 글로벌 SI를 통해서 북미에 무선향 트랜시버를 공급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북미향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주파수 공급에 이어 AT&T 통신사 CAPEX 계획 발표까지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했던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며 단계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형국이다. 당연히 글로벌 SI 공급까지 확실시되면 앞으로 주가는 더욱 급상승할 것이다.

수급이 서버향 트랜시버에서 프론트홀향 트랜시버로 본격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버향 트랜시버 급등 국면에서 오이솔루션이 소외된 바가 있다. 오이솔루션은 800G나 1.6T 트랜시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는데, 이를 AI 서버 경쟁력 미흡으로 시장이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이솔루션은 서버향 트랜시버가 아닌 무선 프론트홀향 트랜시버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본업인 프론트홀향에선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게다가 서버 광통신주가 급등한 것은 오히려 오이솔루션에도 호재이다. 서버에서 무선 프론트홀로 이어지는 병목은 하나가 해소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은 한몸이어서 결국 서버 광통신이 오른 만큼 그 수급이 프론트홀 대표주인 오이솔루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서버 광통신주 급등은 오이솔루션 저점 매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 주가 양상과 이번 AT&T CAPEX 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매수 신호 이후에는 대응이 힘들 정도로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서둘러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6년 3월 12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농심 (004370)

4Q25 Re: 아쉬운 미국

BUY (유지)

목표주가(12M)	540,000원
현재주가(3.11)	39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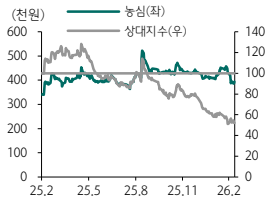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609.95
52주 최고/최저(원)	522,000/363,500
시가총액(십억원)	2,396.6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6,082.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8
외국인지분율(%)	22.85
주요주주 지분율(%)	
농심홀딩스 외 5 인	44.24
국민연금공단	7.9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671.6	3,835.1
영업이익(십억원)	216.5	233.5
순이익(십억원)	197.1	209.8
EPS(원)	32,266	34,400
BPS(원)	522,658	557,91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438.7	3,514.3	3,695.6	3,843.4
영업이익	163.1	183.9	206.7	235.2
세전이익	217.8	218.1	238.4	268.7
순이익	157.3	170.1	179.1	201.9
EPS	25,861	27,966	29,444	33,196
증감율	(8.49)	8.14	5.28	12.74
PER	14.46	15.47	13.38	11.87
PBR	0.83	0.91	0.79	0.74
EV/EBITDA	4.99	5.38	4.12	3.45
ROE	6.17	6.20	6.20	6.62
BPS	452,565	475,778	500,469	528,911
DPS	5,000	5,000	5,000	5,0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4Q25 Re: 시장 기대 부합

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824억원(YoY 3.2%), 334억원(YoY 63.4%)을 시현했다. 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724억원(YoY 1.4%), 231억원(YoY 107.2%)을 기록했다. 당사 예상 대비 광고판촉 관련 비용이 경감되면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공시했다. 다만, '케데헌' 효과를 기대했던 미국 법인 탑라인이 시장 기대를 하회하면서 내용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① 라면 총매출액(국내+해외수출)은 YoY 3.1% 증가했다. 국내 및 수출이 각각 YoY 2.0%, 8.1% 증가했다. ② 다만, 국내 손익은 금 관련 충당금 및 글로벌 광고선전비 등이 반영되면서 YoY 영업마진 개선 폭이 소폭 둔화되었다. ③ 해외 탑라인은 미주가 아쉬운 가운데, 중국/일본/호주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북미/중국/일본/호주가 각각 YoY 2.8%/7.3%/21.7%/11.6% 탑라인 성장을 시현했다.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매출은 YoY 4.4% 증가했다. 달러 기준 매출은 YoY 0.5% 했으나, 물량은 YoY -0.5%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케데헌' 콜라보 및 판가 인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대비 다소 저조한 성과이다. 중국은 신유통 채널 입점 가속화 기인해 YoY 순성장을 이어갔다. 유럽은 판매 법인 설립 이후 거래선 재정비가 이어지면서 매출 280억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아쉽다

4Q25 미주(북미+남미) 성과를 비교하면, 삼양식품 YoY 58.6%(달러 기준 55% 추산), 농심 4.4%(캐나다 제외한 미국, 달러 기준 0.5%), 도요수산 YoY 13.1%(남미 제외 미국만 달러 기준 high single 추산), 니신푸드 YoY 8.5%(남미 제외 미국만 달러 기준 5% 추산)이다. 4사 모두 작년 하반기 10% 내외 판가 인상을 단행했다. Q 성장은, 삼양식품 YoY 45% 이상, 농심 -0.5%, 도요수산 low single, 니신푸드 high single로 추산된다. 농심은 '케데헌' 콜라보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물량 성장을 시현했다.

1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예상하나, 미국 기대감 낮춰야 할 듯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9,287억원(YoY 4.0%), 613억원(YoY 9.3%)으로 전망한다. 국내 수익성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라면 총매출은 신제품 '신라면 골드' 및 '신라면 김치볶음면' 판매 호조 기인해 YoY 3.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수출도 YoY 13% 내외 견조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주는 단기 마케팅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에누리가 증가하면서 순매출 성장률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공산이 커 보인다.

2026년 3월 12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 장비

미국 AT&T 망 투자 소식은 두번째 상승 트리거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11일

쏠리드(050890)
BUY | TP 20,000원(상향) | CP 11,71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00,000원 | CP 89,600원

이노와이어리스(073490)
BUY | TP 60,000원 | CP 45,5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35,000원 | CP 24,70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28,000원 | CP 15,580원

우리넷(115440)
BUY | TP 10,000원 | CP 7,51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80,000원 | CP 66,5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50,000원(상향) | CP 30,65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5,16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OBBBA 제정에 이어 미국 AT&T가 대규모 망 투자 계획을 발표

3/10일 AT&T가 5G/광섬유/위성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을 위해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37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간 75조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2024~2025년 AT&T CAPEX 평균이 30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AT&T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클라우드 컴퓨팅/자율 어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한 상시 연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찌 보면 2025년 7월 미국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 제정 이후 미국 행정부 정책에 가장 먼저 AT&T가 반응한 것으로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다. OBBBA 이후 사실상 두번째 강력한 투자 신호이다.

과거 2019년과 데칼코마니, 팩트는 나왔고 주연은 미국이라는 점만 다르다

미국이 2025년 7월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할당을 예고한 가운데 2026년 6월 첫번째 주파수 경매 일정을 예고한 상황이며 AT&T가 통신 3사중 가장 먼저 대규모 CAPEX 집행 계획을 밝혔다. 미국 통신 경쟁 환경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버라이즌도 CAPEX 증액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왠지 낯설지가 않다. 2026년 현재 분위기가 과거 2019년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연이 2019년엔 한국이었다면 2026년엔 미국일 뿐이다. 과거 2019년 국내 통신장비주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 2018년 국내 주파수 신규 할당이 이루어지고 3월 국내 통신 3사가 5G 상용화에 돌입하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일부업체들의 경우엔 대단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정당화했다. 2026년도 하반기 이후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바탕으로 큰 폭의 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이며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면서 상반기에 이미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정부 주파수 할당 방안 -> 통신사 CAPEX 증액 계획이 발표되었다. 만약 수주와 실적이 나오길 기다린다면 통신장비주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 쏠리드/에이스테크 사례에서 보듯이 통신장비주는 전형적인 네러티브 섹터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확인 절차는 무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광/무선 1등업체 위주로 매수 추천, 단기 실적보단 장기 업황 개선 가능성 주목

현재 국내 통신장비주는 미래를 적절히 반영한 상태이다. 당장 실적 향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광통신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무선통신주들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에 합류하고 있다. 더불어 분야별 1등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 2~3위권 업체들의 주가는 덜 오른 상태이다. 그렇다고 보면 각 업종별 선도업체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후발업체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도 아니며 무선 통신업체들 주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당장은 광통신업체들의 주가 탄력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제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선 무선업체도 유망해 보인다. 당사 커버리지 업체 위주로 적극 매수에 나서야할 때다.

2026년 03월 11일 | Global Equity

오라클 (ORCL.US)

순항 중인 OCI & 상향된 가이던스, 여전히 남은 체크포인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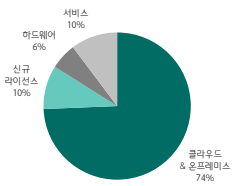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59.15 USD
CP(3.10)	149.40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NYSE
산업 분류	IT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oracle.com
시가총액(십억USD)	429.2
시가총액(조원)	630.4
52주최고/최저(USD)	345.72/118.86
주요주주 지분율(%)	
Ellison Lawrence Joseph	40.31
뱅가드	6.0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2)	(53.8)	1.9
상대	(3.1)	(57.9)	(19.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52,961	57,493	66,939	86,915
영업이익	23,055	25,186	28,382	34,669
순이익	15,710	17,517	21,487	23,094
EPS(USD)	5.56	6.03	7.36	7.98
EPS(YOY, %)	9%	8%	22%	8%
ROE(%)	214.1	85.4	54.9	37.8
PER(배)	30.2	37.4	20.3	18.7
PBR(배)	37.1	22.7	12.5	7.3
배당률(%)	1.4	1.0	1.3	1.3

주: 조정 기준
자료: 오라클, LSEG 시장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3QFY26 실적 지표 시장 컨센 상회, 클라우드 매출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 부합

FY26년 3분기(2월 결산) 주요 실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 172억 달러(+22% yoy), 조정 EPS 1.79 달러(+21%)를 기록(컨센 169억, 1.72)하며, 자체 성장 기준, 15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액과 EPS가 20% 이상 증가했다. 클라우드 매출액은 89억 달러로 고정통화(CC) 기준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했다. 지난 2개분기 연속 클라우드 성장이 가이던스 중앙값을 하회했기에, 3분기에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상단에 부합한 것은 기존 보다는 일정 대비 공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매출은 IaaS 49억 달러(+81%), SaaS 40억 (+11%)이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상회하며 52%까지 상승했다. RPO는 5,530억 달러를 기록,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를 추가했다. 추가계약분은 대부분 고객의 선지급금으로 자금이 확보되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우려 완화 & 오픈AI 인프라 투자 조정 긍정적

오라클은 지난 2월 CY2026년 자금조달 계획(부채와 주식 동등 비율로 450~500억 달러 현금 조달)을 공시하며 투자적격 신용등급과 대차대조표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존에 시장은 40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부채 조달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으나 부채 규모를 약 250억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최대 200억 규모의 ATM(장내 시가발행) 주식발행 계획은 약 5% 수준의 희석 우려를 줄 수 있으나 주가에 가장 큰 우려요인 이었던 자금 조달 관련 불안감을 낮췄고 더 유리한 조건의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이번 컨콜에서 투자등급 채권과 의무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총 3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픈AI의 초대형 펀딩 완료와 스타게이트 투자약정 하향 조정은 오라클에게 긍정적이다. 대규모 자본유입은 오픈AI 대금 지불 관련 우려를 완화시켰으며, 스타게이트 투자 조정은 자체 데이터센터 확장을 줄이고 파트너 활용 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핵심 파트너인 오라클에게 긍정적 조정이다. 또한 AI 학습, 추론 지출 계획은 여전히 대규모이며, 오라클은 단기 학습 수요와 중장기 추론 수요 모두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실적과 상향된 가이던스,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

오라클은 4분기 클라우드 성장 가이던스를 44%~48%(CC기준)로 제시했다. 매출액 성장 19%~21%를 전망,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1.98 달러(+16%)로 컨센(1.94)을 상회했다. FY26년 연간 매출액(670억)과 Capex(500억 달러) 가이던스는 유지하고,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는 900억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1) RPO 추가를 통한 고객 기반 강화, 2) OCI 성장 가속화, 3) 단기 자금조달 우려 해소 등은 이번 실적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이다. 1) RPO에서 매출로의 전환 속도와 가이던스 산정 관련 신뢰도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2)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레거시 부문과 SaaS 사업 관련 불확실성, 3) 높은 부채 비중과 CY26년 이후의 자금 조달 관련 이슈 등은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키움증권 (039490.KS)	3/9	435,500	450,000	3.33%	•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M/S 반등 가능성 높아 • 3월 중 2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예정되어 있어 배당 확대 기대감 유효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6,400	4.23%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한화솔루션 (009830.KS)	3/9	51,800	51,400	-0.77%	• 미국 태양광 모듈 ASP 상승과 IRA 기반 AMPC 효과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 본격화 • 2027년 추정치에 중국업체 Valuation 적용 시 목표 시총 11조원 가능
에코프로비엠 (247540.KQ)	3/9	202,500	197,500	-2.47%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및 인터배터리 2026 기대감
알지노믹스 (476830.KQ)	3/9	164,200	166,800	1.58%	• RNA 기반 유전자치료 플랫폼을 바탕으로 희귀질환·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 • 기존 DNA 교정 대비 정밀도·안전성 차별화를 통해 기술이전(L/O) 가능성 부각
씨엠티엑스 (388210.KQ)	3/9	150,200	138,800	-7.59%	•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Si Parts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 NAND 뿐만 아니라 TSMC를 통해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납품 중
덕산하이메탈 (077360.KQ)	3/9	11,850	13,870	17.05%	• 반도체, FCBGA 수요 증가에 따른 패키징 소재 증가 • 저수익성 Paste 제품을 상대적 고수익성 제품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81%	-1.59%p	+53.73%	+22.2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3/9	98,000	101,000	3.06%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3/9	353,500	345,000	-2.40%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6,400	4.23%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3/9	105,100	97,900	-6.85%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RF머트리얼즈 (327260.KQ)	3/9	51,900	66,500	28.13%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 (105560.KS)	2/9	149,300	151,300	1.34%	•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 (039490.KS)	2/9	405,000	450,000	11.11%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 (000270.KS)	1/12	133,200	162,000	21.62%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90,000	58.4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955,000	46.70%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75,400	53.32%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 (010950.KS)	1/2	83,000	114,600	38.07%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1.65%	+0.21%p	+31.65%	+0.2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7,265	-7.8%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155	-6.6%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775	-2.3%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1,180	62.9%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1.69	-1.5%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5.60	21.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7.33	17.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4.85	13.6%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8	3.9	3.10	3.11	3.12	3.13	3.14
	▪ 일본 1월 BOP 경상수지 (¥941.6b, 12월¥728.8b) ▪ 중국 2월 전년대비 CPI (1.30%, 1월 0.2%)	▪ 한국 4분기 전기대비/전년동기대비 GDP 발표 (-0.2%/1.60%, 3분기-0.3%/1.50%)	▪ 미국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발표 (E 0.3%/2.4%, 1월 0.2%/2.4%)	▪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E --, 2월 56.6)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미국 2월 전월대비 광공업 생산 (E 0.3%, 1월 0.7%)	▪ 일본 1월 전월대비 3차 산업지수 (E --, 12월 -0.5%)	▪ 미국 FOMC 금리결정 (E 3.50~3.75%, 이전치 3.50~3.75%) ▪ 유로권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최종) (E --/--, 1월 1.9%/0.7%) ▪ 한국 2월 실업률(계절조정) (E --, 1월 3.0%)	▪ 일본 BOJ 금리결정 (E --, 이전치 0.75%) ▪ 유로존 ECB 금리결정 단기수신금리/기준금리/한계대출금리 (E --/--/--, 이전치 2.00%/2.15%/2.40%) ▪ 미국 3월 2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